



## 인사말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신숙자

### ‘남동에 살면 사람이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류가 생존해오면서 유래 없는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의 위기를 맞아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지키셨던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울고 웃었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사례는 ‘남동구에 살면 사람이 행복하다!’를 실천한 활동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 궤적의 한 바탕에는 언제나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근간이고 버팀목입니다. 성장 시절에 만난 아이돌보미는 어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고 키워가는 데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사람됨의 8할은 양육자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의 활동은 수많은 만남 중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훗날 아이가 기억의 회로를 돌릴 때 미소와 함께 돌보미였던 나를 생각하며 마법같이 지금의 시절로 돌아와 기분 좋은 시간을 갖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돌보미 선생님의 소박한 소망과 자부심은 오늘도 남동구 지역사회에 빛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행복의 요소가 뿌려져 영혼이 함께 크는 자랑스러운 남동구 아이돌보미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격려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입니다.

2020년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비롯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신속자 센터장님, 전담인력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극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방역 안전수칙에 동참하여 주신 사업 추진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한 해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아동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듯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역 자원이 우리 남동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종사자는 물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서는 저출산 극복과 남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과 함께 나날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의 발달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다양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동구는 본 사업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격려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임애숙**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임애숙입니다.

2020년 한 해 모두 애쓰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활동 사례집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신속자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가정환경과 양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는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선생님, 그리고 아이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호자와 아이의 관계는 물론, 보호자와 돌봄 선생님,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때,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며 성장할 때 그 긍정적 에너지를 힘입어 나라의 미래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돌봄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동구의회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01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_ 11

02

아이돌보미 활동 수기 \_ 15

03

이용자 수기 \_ 49





04

남동구만의 특별한 사업

"SAFE OF 남동구" \_ 63



05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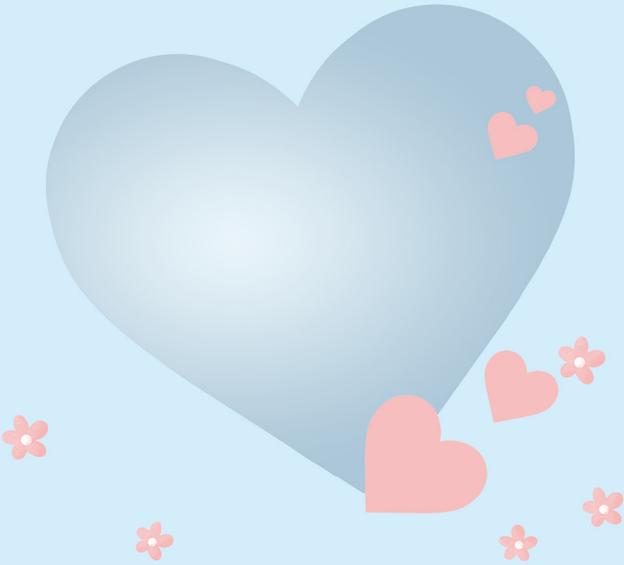
상호존중 수칙 \_ 67



06

아이돌봄의 tip \_ 71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mdong.familynet.or.kr](http://namdong.familynet.or.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 |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

### ▣ 시간제

- 돌봄대상 :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 활동시간 : 서비스 신청 1건 당 2시간 이상 활동
- 가형, 나형, 다형 : 연간 840시간 정부지원 가능
- 라형 : 시간제한 없음

### ▣ 종일제

- 돌봄대상 : 만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활동시간 : 서비스 신청 1건 당 3시간 이상 활동  
월간 60시간~200시간 내 활동 원칙
- 라형 : 시간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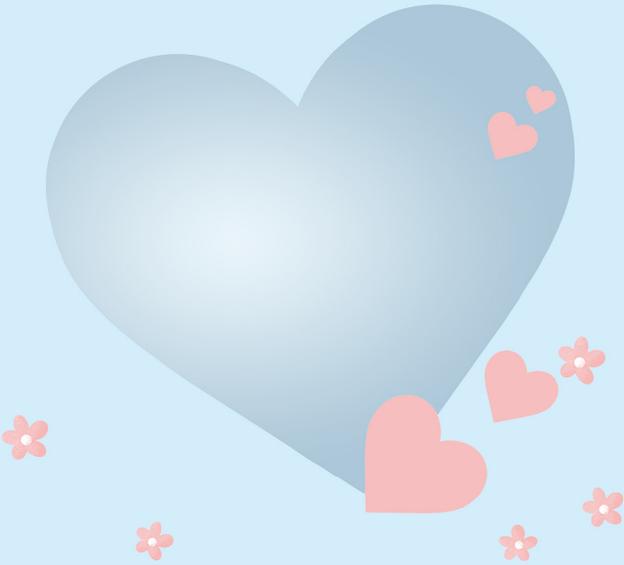
### ▣ 아이돌보미 직무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학습분위기 조성
- 영아 돌봄(36개월 미만) 시 종일제 서비스 제공
- 이유식 먹이기, 젓병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가사서비스 제외(설거지, 음식조리, 빨래개기 등), 목욕 제외(36개월 미만 영아 가능)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서비스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 존중,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준비 하거나 또는 지정한 음식 제공

-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 기관에 이송(☎119)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4-1391) 또는 수사기관(☎112) 에 신고 후 센터 및 각 조장에게 연락하여야 함

### • 활동 사항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돌봄 활동 시 돌보미 신분증 소지 할 것
- 돌봄 활동 시 핸드폰 사용 자제할 것
- 아동 기준 4초 이내 친인척 연계 돌봄 서비스 불가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의 돌봄 서비스 진행 시 안전사고 관련 보험 청구불가
-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고 활동 시간을 꼭 준수 할 것(다음 활동으로 인한 조기 퇴근 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사전 연락하여 양해)
- 아이 돌보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에 30일 전에 알릴 것
- 활동 시 이용자의 승인 없이 아이를 혼자 두고 무단이탈하는 것은 절대 불가
- 활동 종료 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제 3자에게 안전하게 인계 후 종료할 것
- 지정된 장소 외의 활동 장소 이동 시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이동 할 것(동의 없이 이동 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불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mdong.familynet.or.kr](http://namdong.familynet.or.kr)

02

## 아이돌보미 활동 수기

이용자 가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및 가족의 이름은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사랑의 돌봄 |

### 아이돌보미 박○임

8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년간 많은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깊게 새겨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초창기에 6살 된 남자아이를 아침에 돌보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고 아빠 혼자 키우고 있는 예민하고 왜소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아이가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빠에 의하면 아침을 잘 먹지 않아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둘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의외로 잘 먹었습니다. 아빠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침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이마를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몸을 씻기고 옷 입히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옷 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안가겠다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라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달래가며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출장 가게 되어 제집에서 하루를 재우게 되었습니다. 아파마저 자기를 버렸는 줄 알고 울고불고 떼쓰며 힘들게 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빠의 전화를 받고 아이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와의 헤어짐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결핍과 상처로 잠재되어 있어 여러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인내심을 갖고 그 아이를 하루하루 대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집에 갈 때 자기가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도 주고, 달래기도 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침 먹는 것도 점점 좋아지고,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정도 돌보던 중 멀리 이사 가게 되어 그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겁니다. '잘 자랐겠지, 새엄마의 사랑도 받으며 잘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제 자식을 키울 때의 돌봄과 아이돌보미로서의 다른 돌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 아이돌보미 이○근

처음에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일을 하던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조부모님과 함께 살며 보살펴 주셨고 맏이에서 막내까지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며 끈끈한 사랑으로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마다 핵가족 구성으로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의 가정이 많고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맞벌이 하는 부모가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부모님이 부재일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게 의무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놀이나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간식도 식사도 균형 있게 잘 먹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 저는 몇 번이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 고맙고 감사 하고 이 가정이 최고라며 칭찬을 해 주곤 합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경제활동 관계로 가정환경이 분주한 아이들은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어두우면서 쾌활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정을 만나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가정입니다. 처음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안은 온통 어수선 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려고 하니 냉장고의 반찬은 곰팡이가 꽃송이처럼 피어 있고 비닐봉지 안의 야채는 녹아서 물이 되어 흘렀고 마땅히 챙겨줄

수 있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가까스로 챙겨주었지만 아이들은 바르게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조절을 하지 못하고 밥만 먹는다면 반찬을 뒤적이며 사방에 흘리게 되니 바닥은 끈끈한 것이 거둬져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방문하며 지켜보다가 차근차근 식사지도를 했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인내를 가지고 하다보니 차츰 아이들은 식사습관이 안정되면서 흘리지 않았고, 먹는 습관도 차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는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은 하였지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여 한글 지도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글 지도를 하려다 보니 몇 글자 읽고 보고 쓰는 것도 몇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지도하고 반복하다보니 조금씩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씻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워 샤워를 해주는 등 도움을 주며 가까워지려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주말에도 아이들에게 손길이 못 미치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1년 가까이 돌보면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여러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방문을 중단 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 임무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 생애 마지막 직업

### 아이돌보미 송○덕

사회첫발을 내디딜 때 첫 직장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직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꼬물 꼬물거리는 너무나 예쁜 3개월 아기 때부터 2년 정도 어린이 집에 갈 때까지 아기가 뒤집고, 앉고, 서고, 걷고, 말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주로 종일제만 활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집의 아이를 돌보면서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는 아이를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이용자와 친척처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도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이 없을 텐데 매일 아이의 웃음과 재롱을 보며 함께 있는 시간은 맑고 순수한 시간들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서 이용자와의 마음 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큰 복이고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겸손의 자세로 이용자의 육아방침에 따르며 정성을 다하면 편해집니다.

아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겁니다. 무사안일의 마음으로 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다치지 않도록 단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돌보는 것입니다. 첫아이 엄마들이 육아 경험이 없어서 조금씩 알려주면 고맙게 받아들이더군요. 좋은 만남은 좋은 미래를 기약하는데 새로운 아이를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설레입니다. 지금 돌보는 아이가 3개월 때 가서 4년째 보고 있는데 2년이 지나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서 다른 집 종일제를 갈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금쪽같은 아이, 엄마의 근심스런 얼굴이 눈에 밟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오전에는 어린이집

에 등원시키고 오후에는 다른 곳에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까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엄마가 아침 출근시간에 바빠서 아이 준비물을 깜박하고 얘기 못하고 갈 때 알아서 잘 챙겨 보내기도 합니다. 이용자께서 “저는 선생님 아니면 직장 못 다닐 것 같아요”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저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60대 후반인 이 나이에 나이 제한 없지, 정년퇴직 없지, 스트레스 없지, 아이돌보미는 최고의 직업, 천직으로 알고 인생 후반의 전 생애를 투자할 만큼 가치와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며 매일매일 아이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을 보며 함께 웃고 행복합니다.





## 「 할머니 아니 선생님 사랑해요 」

### 아이돌보미 한○수

돌보미로 입문 한지 어느덧 1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나를 거쳐간 아이들이 많지만 2016년 1월 동이들을 처음 만나 지금까지도 케어하고 있다. 한 아이만 케어 하다가 동이 들을 케어 하려하니 두려움도 있었지만 만나보니 너무나 귀엽고 잘 따르고 엄마가 많이 도와주어 생각보다 수월하게 두 아이를 케어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머리가 심히 아파 검사하니 뇌하수체 양성 종양으로 시신경까지 덮여있어 그냥 두면 실명할 수도 있는데 종양 자리가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라 수술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아이들은 누나와 세 살 쌍둥이들 아직도 어린대 어찌나 하는 마음에 나도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을 케어 하기에 더욱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동이들 중 한 명은 손가락을 심히 빨고 있어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구나 했는데 다른 아이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빨라서 뭐든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한다.

엄마에게도 더 많이 안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에 상실감을 느꼈을 것 같아 엄마에게도 더 많이 안아 줄 것을 말하고 나도 안아 주고 칭찬해 주니 손가락 빠는 습관도 고쳐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엄마는 매일 방사선 치료차 서울로 병원을 다니고 그 공백을 내가 메꾸면서 정이 더욱 들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어찌나 감기도 잘 걸리는지 병원에 들려 예약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다반사였었다. 열이 나는 아이는 집에서 데리고 놀기도 하고 보호자 허락하에 우리 집에도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아기 케어하는 일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눈을 떼어서는 안되며 보듬어 주고 사랑이 밀반

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구나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의 케어는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는 7살이 되어 나를 의지하고 좋아한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이 제일 좋다”라고 말한다. 엄마도 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조금 작아졌다고 한다. 머리 아픈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등이 들을 케어하면서 몸과 생각이 자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있다. 비록 내년부터는 돌봄을 안한다고 하지만 내 손자 같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 청년이 되어 멋지게 변할는지 선생님은 궁금해서 계속 지켜 볼 거야” 하면 “할머니 아니 선생님 사랑해요” 하며 내 품속으로 뛰어든다.

“그래 내가 이 맞으로 산다.”



## | 아이돌봄 선생님 파이팅!! |

### 아이돌보미 이○근

평상시와 같이 돌봄 가정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돌봄 가정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7시30분인데 집에서 출발을 7시30분에 하면 된다는 순간의 착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옷을 입혀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하자 어머니는 “아니요, 그냥 집으로 오세요.”하는 것이다. 부랴부랴 댁에 도착하여 어머니께 상황설명 드릴 여지도 없이 아이는 제가 챙기겠으니 어머니는 얼른 출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한숨 돌리고 아이 세수시키고 식사 챙겨주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녁에 말씀드리리라 생각하고 후유!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다소 단호한 말투로 이제 그만 오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운함과 실망감 속 상함이 한꺼번에 가슴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실수를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돌봄가정의 부모님과 돌보미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우선될 때 희망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신뢰가 없었을까요? 하는 섭섭함이 한동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실수는 내게 있지 생각하니 긍정의 힘이 생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사명은 아이로 인하여 부모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지만 사랑과 긍정의 자세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의 큰  
바람입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남동구건강가정지원  
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늘 수고하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파이팅 !!





## 「 행복한 아이돌보미 」

### 아이돌보미 서○숙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많은 아가들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저를 믿고 아가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많은 아가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나름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8개월 된 잘생기고 예쁜 아가를 만나 거의 1년 반 이상을 함께 했습니다. 아가 친구가 아직은 너무 어려 잠도 많이 자고 갈수록 커가면서 저를 알아보고 친해지면서 밥도 먹이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정말 한 몸처럼 함께 하며 점점 멋진 남자아이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잠깐 바꾸면서 약 7개월 정도 활동을 멈추다 다시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훌쩍 커버린 아가 친구를 만나 다시 생활하면서 너무 남자아이답고 더 의젓해진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아이가 많이 커서 이제는 자기주장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활동한 경험으로 볼 때 아가여도 존중해주고 기다려 준다면 분명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가여도 본인을 존중하고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면서 소통을 하면 반드시 좋은 관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한 아가 친구들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저와 참 잘 맞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이 일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 시작한 첫날」

### 아이돌보미 김○희

○○이(여아 만4세)를 만났다. 통원버스에서 인계 받아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주는 거였다. 그런데, 아이와 즐겁고 유쾌하게 지낼 거라 예상했던 나는 그날 그 기대가 산산히 부서졌다. 우선 집까지 도착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아이가 나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거부하는 바람에 3분거리의 집에 20분이나 걸려 도착하게 되었다. 어르고 달래는데 진땀이 나고 이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투정을 부리고 뭐든지 혼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밥도 잘 먹지 않고 말도 잘 안했다. 저녁때 아이의 엄마가 와서 물어보니 우선 죄송하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몇 번 바뀌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가 때 2년 정도 시골 외할머니 댁에 맡겨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부모를 자주 못 보았다 함) 아빠에게는 그래도 덜한데 유독 엄마한테 더 냉랭한 것 같았다.

이제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듣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워졌다. 어떻게든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강한 욕구가 들었다. 이후로 반응하든 안하든 끊임없이 다정하게 대하고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또 인형놀이, 그림그리기, 바깥 놀이 등 각종 놀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기를 1개월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려 말도 잘하고 깔깔 웃기도 하며 내게 요구도 하고 또 내말도 잘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많이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눈빛으로 깊게 교감하면서 친밀도를 높여갔다.



어느 듯 헤어질 때 섭섭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점차 똑똑하고 명랑하고 밝은 ○○이를 보게 되었다. 그 아이의 실체였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일을 보람 있게 만든 내 첫 번째 소중한고객(?)^^이었다. 예쁘고 사랑스런○○이 부디 티 없이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매일 기도한다! 오늘도 꽃 같은 예쁜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자부심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본다^^♡♡



## 「내 꿈과 희망을 찾다」

### 아이돌보미 최○자

어느 날 아이의 체험 활동을 찾기 위해 들렀던 구청 홈페이지에서 낯선 직업을 찾아냈다.

‘가사를 하지 않는 아이돌보미’ 뭔지는 모르는 전혀 생소한 일이었다.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 자녀도 엄마 손을 벗어나고 있을 즈음 세상 어디에도 나를 기다려주는 직업은 없었다. 매일 같은 일상생활에 지쳐 있을 때 아이돌보미는 나를 눈뜨게 했다.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교육만 받고 그저 부모가 없는 부재 시간에 부모 대신 있어 주면 되려나 단순히 시작한 아이돌보미. 그런데 아이와 둘이 눈만 마주보고 있을 수는 없고 간혹 함께 놀아 달라는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해줄까 되물을 수는 없었다. 돌보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서교육 교실에서 유아 그림책이 있는 도서관 유아실에서 그림책을 뒤적이고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 투자만으로 내가 준비한 놀잇감을 갖고도 충분히 놀 수 있고 책을 보여주고 재미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정기적으로 가는 가정 친구들은 오늘 어떤 걸 선생님이 해줄까? 하고 기다리는 아이도 있다.

이용자라도 내가 듣고 보고 겪은 육아상식을 공유하면서 아이와 있었던 일, 무얼 보고 했는지를 대화로 풀었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아이 이용자라도 서로 노력하며 이해하려고 했고,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려고 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업고 여럿이 키워 내면서도 힘든 내색 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라면 지금은 아이가 돌만 되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키우기 힘들다며 우울증이 오는 이용자도 있다.



돌보미 경험이 많지 않을 때 센터를 통해 만난 이용자가 우울증에 시달려 제 아이들조차도 힘겨워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분이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이용자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되어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자분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스스로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 본인 스스로 극복하고 본인이 우울증에 시달렸음을 아시고, 함께 노력하고, 말 들어준 돌봄 선생님에게 자신과 가정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들어줌으로 해서 한 사람을 살렸구나 생각하니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돌보미 선생님과 이용자 간 세대 차이 생각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편에 서서 아이의 입장이 되어 눈높이에서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용자처럼 제 마음 어느 구석에 가려져 있던 그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없음을 느낍니다. 좋고 나쁜 조건 모두 마다하지 않고 간혹 일단 한번 부딪쳐 보자는 생각에 주어진 활동 열심히 하다보니 제게 신입선생님을 교육하고 실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센터에서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제 직업은 아이돌보미 입니다. 당당히 말하고 자부심도 갖습니다. 노력한 만큼 꿈과 희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웃고 뒹굴던 내 꼬마 친구들과 때로는 조언도 해주시고 제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 이용자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나를 성장시키는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백○숙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가끔 궁금하고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은 아이가 있다. 주말시간 19개월간 돌보았던 6살 여자아이입니다. 6살 이라기에는 너무 작고 마른 아이였다.

첫 날 어머니가 출근하고,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저는 아이와 무엇을 하고 놀지를 물었는데, 아이는 대답 없이 TV 만화영화 옥토넷만 보고 있었다. 레고를 가지고 와서 TV를 껐는데 별떡 일어나더니 방구석 모서리에 등 돌리고앉기에 따라가 보니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고 있었다. 소리를 안내고 방구석 모서리에 등 돌리고 울고 있는 모습에 너무 놀라 안아주면서 “우는 거는 앙~앙~ 소리 내서 우는 거야”라며 한참을 앉아서 진정을 시키고 다시 옥토넷을 시청하게 해주었다.

신기하게도 매일 퍼즐과 소꿉놀이, 그림그리기, 책에서 그림보며 이야기하기를 순서대로 하는데 꼭 옥토넷을 틀어놔야만 했다. 주말 2일을 8시간에서 12시간을 돌보는데 그 시간 내내 TV를 끌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인수인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직업을 갖기 전까지 5개월 정도 시댁에 아이를 두고 왔는데, 시댁에서 오면서부터 울면 꼭 방구석 모서리에서 소리를 안내고 운다고 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만날 때 마다 많이 안아주고 아이와 놀이 활동을 많이 해주었다.

“울때는 앙~앙~ 소리내서 우는 거야”를 한 5개월쯤 하니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6개월쯤 지나니 아이는 많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 그만 두기 얼마 전의 활동일지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활동일지\***

○○를 보기 시작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엄마가 나간다고 많이 우는 것은 처음이다. 한참을 놀다가 아이가 내일도 오느냐고 문기에 아니라고 하니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와 있겠다며 오지 말라고 한다. 처음 만날 때부터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얘기는 했어도 나에게 오지 말라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이 잘 지냈었는데, 엄마가 나갈까봐 울고, 나간다고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의 감정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은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벌써 11살 초등학생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도 가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고, 엄마와 잘 지내면서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해본다.

## | 어른은 아이의 거울 |

### 아이돌보미 최○자

손가락질과 함께 “너 누구냐” 하는 반말을 하는 아이와 첫 만남이었다. 당황스럽지만 반말이 아이들의 진심은 아니리라 믿고 싶었다. 세상을 배우려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욕설과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나쁜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평상시 하는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놀릿감도 던지고 부시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용자에게 어렵게 말씀드려 정신과 치료나 센터에서 하는 치유프로 그램에 참여해 보시라고 했지만 말 뿐이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생각없이 했던 욕설과 행동은 놀이화로 정착되고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습관화가 되었다. 이용자도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고만 있는건지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가정이 깨지며 생긴 채워 줄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커서 그런가 싶을 때 어른들의 생각지 못한 행동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도 꺼내 보고 들어주고 나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바른말과 행동을 하게 하려고도 했지만 마주 보고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이지만 모멸감에 마음이 떨려올 때도 있었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은 아이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사랑으로 채워지고 반듯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 | 하루 일기 |

### 아이돌보미 박○순

오늘도 동생은 일등을 하겠다고 재빨리 뛰어보지만, 형이 벌써 앞질러 뛰어가네요. 동생을 달래러 얼른 뛰어갔더니 “선생님! 늦게 가는 사람이 일등이지요?” 라고 묻네요. 두 눈에 결기를 가득 채운 귀여운 모습에 웃음이 빵 터집니다.

등원버스를 먼저 타겠다고, 달리기를 빨리하겠다고, 하다못해 달팽이 껍질을 많이 줘겠다고며 매번 울면서 형 옷을 잡고 매달리던 동생입니다. 이랬던 아이가 늦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게임 법칙을 바꿨더니 이젠 뒤따라가면서도 웃는 아이가 됐답니다.

반면에 동생에게 밀쳐져 뒤로 넘어질 때마다 자기는 힘이 없다며 풀이 죽던 형에게는 강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 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대단하다고 계속 칭찬을 했지요. 그랬더니 요즘은 자기 소신을 얘기하며 가끔 저와 동생의 의견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아이라 들어주고 인정해 주면 "고맙습니다"를 연발해 마냥 예쁘지요. 스승의 날 고사리손으로 쓴 카드와 케이크를 준비해 준 아이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아침저녁으로 해맑게 맞아주는 아이들이 있어 오늘도 마냥 즐겁습니다.

## 「아이와 함께 하는 소소한 행복」

### 아이돌보미 나○진

코로나19로 인해 영아가 어린이집을 못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13개월부터 돌보았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14개월부터는 어른들이 하는 말 들을 다 알아듣고 웅알이로 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네요. 너무 신기해요. 영아들도 자기 생각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개월부터는 TV프로그램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줄 알아요. 까꿍 놀이도 스스로 주관해서 먼저 놀고 선생님 곱탕 먹이는 장난도 싱글싱글 웃어 가면서 장난을 치네요.

코로나 19로 많이 기분이 침체 되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 단어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 야쿠르트가 남았는지 흔들어 보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해맑아지고 예뻐져서 너무 좋아요. 영아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영아에게 좋은 시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통의 전화」

### 아이돌보미 고○진

어느 날 누나는 3살, 동생은 5개월 된 남자아이가 저에게 연계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너무 예쁜 ○○이는 분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지요. 그리고 저에게 푹 안기는 ○○이는 너무 너무 귀여웠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시는 엄마의 모유 한 모금을 먹고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이는 그리 투정도 부리지 않고 저에게로 건네줬답니다. 그렇게 쑥쑥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이는 3살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근로자의 날. 저는 남편과 서울 하늘공원에 나들이를 갔는데 오전에 저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이가 선생님께 가겠다고 너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을까요?” 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였지요. (멀리서는 ○○이 울음소리~)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전화로 ○○이와 통화 할게요. ○○이를 바꾸어 주세요.”

“○○아! 선생님이 지금 빠방타고 너무 멀리 와서 갈 수가 없구나.”

“우리 코~자고 내일 만나자.”

“내일 선생님이 ○○이에게 빨리 달려갈게. ○○이 기다려줄 수 있지?”

“우리 내일 만나서 재미있게 뭐하면서 놀까?” ○○이는 네~ 네~ 하면서 조금씩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 했답니다. 저는 마음이 찡 찡 아팠답니다. ○○이 울먹이는 목소리에 그리 즐거운 나들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찾는 아이가 있다는 것에 보람도, 기쁨도,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가 봅니다.

## | 힐링의 시간 아이돌보미 |

### 아이돌보미 강○애

처음으로 돌보미 활동을 배정받은 곳은 9개월 된 아기였어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거실바닥을 밀대 청소기로 밀고 다니는 모습에 많이 웃었고, 미역줄기, 바나나, 튀밥 등등 촉감놀이에 까르르 넘어가곤 했는데... 그리고 15개월이 되어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면서 발버둥 칠 때 놀이방에 같이 들어가 놀다가 살며시 빠져나오곤 했었는데...

벌써 34개월이 되어 풍선 칼이랑 풍선모자, 풍선망치 만들어 같이 칼싸움도 하고, 자동차 놀이,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등 역할극 놀이를 좋아하는답니다. 음식은 밥을 먹을 때 다른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김치는 꼭 있어야 하고 된장국에 나물 종류도 잘 먹고 전형적인 한국인의 입맛이랍니다. 대소변도 잘 가리고 엄마가 출근할 때는 안녕히 다녀오시라 인사도 잘하고, 저한테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와요” 하고 묻기도 하네요. 며칠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고구마를 캐러 갔었는데 아기가 저한테 “고구마 캐서 선생님 한개 줄게” 그러는데 마음이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을 제가 하고 싶은 아기 돌보미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아기들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돌보미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 병원으로 황급히 |

### 아이돌보미 이○근

어느 날 저는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센터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다. 이용자가 아프니 아이를 급하게 봐 달라는 전화였다.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물리치료도 하다 말고 주소지로 갔다.

아이엄마는 거실 바닥을 헤매며 아파하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일단 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이 기저귀를 부랴부랴 챙기고, 집 앞에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다시 내려와 아이엄마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나는 아이 점심을 챙겨줘야 하기에, 아이 엄마한테 “지금 아이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가 점심 먹이고 다시 병원으로 올 테니 조금 기다리다가 진료받고 계세요”라고 한 후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집에서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진료받고 택시 타고 갈 테니 오시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약 드시고 푹 자고 일어나 전화하라 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이 되어도 전화가 오질 않아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정신없이 잤다며 아이 데리고 오셔도 된다고 하였다. 이 가정은 인천으로 이사를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병원도 모르고 인천 지리도 모르는 상태였다. 며칠이 지나 몸은 괜찮은지 궁금해서 문자를 보냈으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아마도 아이엄마가 많이 아프셨던 상황이라 경황도 없어 연락이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잠깐의 짧은 돌봄이었지만 아이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 아이돌보미 이○숙

아이돌보미의 큰 장점은 아이에게 익숙한 가정의 공간에서 안정감 있게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돌보아 온 쌍둥이 여자아이가 지금은 3세가 되어서 “선생님 좋아~ 엄마 싫어~” 라고 표현해주었을 때는 엄마에게는 미안하였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이용자께서 “선생님은 베테랑이세요.”라고 칭찬해 줄 때도 기분이 좋답니다. 오랜 경험과 실천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의 친화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이셨나 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발달 시기에 맞춰 경험과 자극을 주고, 사랑을 주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생활은 즐거운 일상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기쁘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돌봄 활동일기 |

### 아이돌보미 정○경

아이돌봄 삼년째 되는 해, 단기활동으로 아이는 다섯 살이고, 강아지도 있는 가정을 만났다. 활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11시였다. 처음에 긴 시간이라 망설였다. 집안 환경은 비좁고 강아지까지 있어 처음에는 당황했다. 아이도 나를 경계 했었다. 아이하고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림책과 만들기 수업을 같이 하면서 금방 친해지게 됐다. 엄마가 나갈 때면 아이가 불안해 보였다. 엄마가 아이한테 인사도 안하고 나가니 아이가 불안해했다. 세 번째 가는 날 나가는 엄마를 불렀다. 아이한테 엄마가 나갈테니 선생님과 잘 지내라고 한번 안아주고 가라고 했다. 엄마는 축스러워 했지만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날 하루는 아이가 재밌게 놀았다. 변화는 이런 거구나~~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 표현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진심이 느껴졌다.

어느 날 엄마가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그 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의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아이가 많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이럴 때 아이돌보미로 보람을 느낀다.

## 「두근두근 심쿵 해~ 행복하고 감사한 돌보미 교사」

### 아이돌보미 서○경

매일 매일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 숨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하며 출근하는 저는 이제 아이 돌보미 2년차입니다. 돌보미 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보육교사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였으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며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저에게 우리 예쁜 아이들과 만나서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보미 교사로 생활하게 된 지금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귀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밝고 맑은 우리 아이들 곁에서 저는 늘 설레고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자라며 저 또한 아이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이들의 곁을 잠시 떠나있었던 제가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때 마침 기회가 되어 남동구에서 아이돌보미 교사모집에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운명처럼 필연처럼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준비를 하였고 실습을 하면서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던 선배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유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돌보아 주고 있는데 날마다 “선생님, 예뻐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집에 안 가시면 안돼요?”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떼도 쓰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이로 우리 아이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스스로 없이 다가와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힘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 더없이 소중한,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 감사한 돌보미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와 ○○야♡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의 맑은 영혼 곁에 선생님이 이렇게 늘 함께 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받는 어여쁜 아들, 딸이 되기를 선생님이 늘 축복하고 기도 할게.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참 많이 행복하고 고마워.

얘들아!! 많이 많이 사랑한다~♡♡

## |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

### 아이돌보미 나○진

2019년 5월에 6살 여아, 3개월 남아 돌봄에 처음 배치되어 이용자 가정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머니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대화 중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어머니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만으로 행동을 하면 실수할까봐 재차 반복해서 정확히 물어보았다. 그러면서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죄송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은 언어 장애등급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중 7살이 된 여자아이는 ㄱㅇㅇ 마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기본글자에 대한 공부를 권유해드렸으나 맞벌이와 두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서인지 일주일에 한번 오는 선생님 지도로는 효과가 전혀 없어서 제가 날마다 기본글자 공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없어 하기 싫어하고 울어서 힘이 들었지만 시간을 두고 아이를 달래서 왜 글자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를 설명해 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노는 것 보다 공부를 먼저하고 놀자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퇴근하고 온 엄마에게 “엄마 선생님 가시는데 어서 나와서 인사하세요”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안아주며 내일 만나자하고 인사를 하면서 힘이 들어도 내가 하고 있는 사랑과 정성의 돌봄활동이 결코 헛 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가족처럼 아이들을 보살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 1 알쏭달쏭한 아이들의 성 1

### 아이돌보미 김○자

사람에게는 3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식욕이고 둘째는 수면욕이며 셋째는 성욕구입니다. 이3가지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돌보미 9년차 선생님입니다. 그동안 많은 친구들을 돌봐 오면서 제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한명의 친구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아주 예쁘고 똑똑하고 4살에 또래 친구들 보다 성장 발달이 빠르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며 작은 방으로 가더니, 무엇을 가져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가 보았더니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은 빨개져서..... 그리고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할 때 드물게 피아노 의자나 모서리에 잠깐씩 그러는 친구를 보았던 기억이 나서 어머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계셨고 유치원에서도 그럴까봐 창피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아이가 심심해하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의 성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성행위는 몇 살부터 시작하냐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영아 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욕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성장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지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심

한 친구가 있고 또는 모르고 지나가는 친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 놀이를 바꿔가며 재미있게 돌  
봐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주 예쁘게 자랐을 친구가 보고 싶  
습니다.♡





## 1 알쏭달쏭한 아이들의 성 리

### 아이돌보미 허○봉

4살부터 7살까지의 여자아이들을 주로 맡았는데, 그중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다른 형태로 자위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몹시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도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도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지금은 적당히 못 본 척하다가 적당히 눈치를 봐서, “우리 재미있는 놀이하자”라고 하면서 놀이로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소중한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 병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은 이런 문제로 돌보미와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의논을 한다 해도 나 역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성장 과정일까? 아니면, 제지해야 될 행동일까? 나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말리고 싶은데, 선불리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어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은 당연히 그런 행위들이 성적인 행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돌보미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어 대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십시일반의 기적 |

세상에 태어난지 4개월. 이 아이와의 첫만남을 잊을 수 없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집을 떠났고, 아빠 혼자 아이를 보고 계셨다. 할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항암 치료 중이시고, 아빠는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셨다.

월세도 몇 달째 밀려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처음에 여기서 돌봄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사정이 너무 어렵고, 아이를 보니 돌봄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에 여름 반팔 옷이 입혀져 있었고 얼굴은 터서 빨개져 있었다.

아기로션부터 아기용품은 하나도 준비되어있는 것이 없었다.

내 주위에 2살 위 손주가 있는 한○○돌봄선생님이 생각났다. 그 돌봄 선생님의 손주를 내가 2년동안 돌봄을 했기에 아기용품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도움을 청했다.

내 소식을 들으시고 목욕욕조, 아기옷, 장난감 등을 자동차에 실어 오셨다. 또한 쌍둥이 돌봄을 하셨는데 아기들이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을 모아 주셨고, 나는 집에서 매일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젖병에 보리차를 먹인 흔적이 있어 아빠에게 물어보니 분유를 살 돈이 없어 밤에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보리차를 먹였다고 했다. 밖에 나가 얼른 분유한통을 사왔다. 분유를 먹으며 나를 쳐다보던 그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다.



센터 아이돌봄팀 담당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다.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같이 울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센터 내 선생님들과 공익근무하시는 분까지 기부금을 모아주셨다. 아기 분유 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성장해가는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기부금이였다. 또한 수급자 가정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초록우산에서 보증금 후원도 받게 해주셨다.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 뿐이 아니라 주변 이웃, 그리고 센터 직원들까지 마음을 다하여 이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임대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이 아이와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쯤 4살이 되어 있을 이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길 기도해본다.

03

## 이용자 수기

이용자 가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및 가족의 이름은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이○경 이용자

처음 우리 아이 100일이 지난 후부터 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도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이곳 남동구로 이사를 와서 기대반격정반으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조금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는 운이 좋아서 일까요~ 지금도 너무나 좋은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 둘째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꾸준하게 우리 아이를 봐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보미 선생님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봐주시고 언제든지 아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 주시면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놀아주시는 모습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밖에서 저희 아이와 함께 놀아주시면서 저보다 아이 친구들의 이름도 알고, 그 친구 어머니과도 소통하시면서 함께 키즈카페, 병원, 아이 학원까지 함께 해주시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는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는 저희 담당 선생님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다 좋으신 분으로 생각되었으면 합니다.

## 양○미 이용자

저는 23개월 남자 쌍둥이 워킹맘입니다.

결혼 후 8년만에 어렵게 만난 우리둥이들~ 누구에게나 자식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저에게 우리둥이들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랍니다. 친정 부모님은 늘 저의 임신을 응원하고 기다려주셨지만 잘되지 않아 마음아파 하시며 티 내지도 못하시고 속으로 걱정만 하셨는데 우리둥이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너무 기뻐해 주시며 우리둥이들을 함께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둥이들 다행히도 작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보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의 육아는 생각보다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내 아가들이지만, 처음이라서 낯설고 한 과정 한 과정 마다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둥이들을 사랑하지만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고 친정 어머니가 저와 함께 둥이들을 봐주셨지만 그 버거움이 줄어들진 않고 힘든 생각만 들 때도 많았습니다.

1년 육아휴직을 하면서 친정엄마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복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고민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안 보면 우리 엄마 혼자서 둘을 볼 수 있을까? 너무 친정엄마한테만 큰 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고민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쌍둥이 맘 카페에서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그 다음의 산은 과연 동이들을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할 때도 쌍둥이라니까 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몇 군데 거절을 당했던 터라 걱정했는데 친정엄마가 한 명을 보고 돌봄 선생님이 한 명을 봐주는 상황이긴 해도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걱정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분을 저희 동이들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젊은 시절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아이들이 이제 다 크고 해서 다시 일해보고 싶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참여하시게 되었다며 저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주셨고, 워킹맘인 저를 많이 응원해주셨습니다.

직장생활이 늘 규칙적이지 않아 변수가 생기는 상황도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 될 때도 저희 가족들 상황에 맞춰 배려해주시고 늘 절 응원해주시는 돌봄 선생님 덕분에 저는 현재도 직장을 다니며 우리 동이 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너무나 감사한 정부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 쌍둥이 맘 카페에도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엄마들의 글을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라고 적극 권장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로 인해 새로운 인연인 아이돌봄 선생님!! 늘 우리 가정을 위해 배려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동이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 제가 직장과 가정을 둘 다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돌봄팀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제가 급한 상황이 생겨 연락드리면 언제나 빠르게 답변 주시고 고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삶을 꿈꿉니다. 시대가 바뀌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면서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출산의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정책이 좀 더 확장되어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며 (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양질의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나 이용자

저는 두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인천으로 이사 온 지 벌써 2년 반이나 지났네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들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저희 가족이 아이돌봄 선생님이신 최○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믿음이 갔던 점은 선생님께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돌보 시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즐겁고 재미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이들 생일 때마다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 주시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을 때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이나 전시정보 등을 일부러 찾아서 알려주시기도 하셔서 육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고,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을 느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엄마의 공백이 혹시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고 실제로 그런 고민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신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이상으로 엄마가 사회에서 버틸 수 있게 지지해 주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이○경 이용자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저는 저희 둘째 아이 백일이 지난 후부터 아이돌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림동에서 이사 오고 난 이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 아이돌봄 재신청하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저희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선생님의 기대치도 높았다고 하지만 그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선생님께 너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10개월 무렵부터 봐주신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 4세가 되어서까지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일도 못하게 되고 육아의 힘들음을 말로 다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둘째가 조금은 버릇없이 행동해서 선생님께 누가 되거나 기분이 안 좋으실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웃어주시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에 선생님이기 이전에 제2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지금 선생님과 다시 연계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선생님의 사정에 저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크답니다. 다른 아이돌봄 선생님 모두 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와 선생님의 인연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도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김○민 이용자

사랑하는 ○○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 쓰는 편지구나..

엄마가 ○○이를 낳고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이를 낳자마자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직장에 나가게 돼서 엄마가 ○○이에게 참 많이 미안했었어. 할머니께서 ○○이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 나서 ○○이 돌봐주실 분이 없었어.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아이돌봄이란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급하게 신청했지만 정말 네가 인복이 있는지 일주일 만에 선생님이 매칭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집에 오시게 된 선생님이 유○옥 선생님이요 지금까지 널 아주 잘 보살펴주신단다. 선생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배울게 아주 많은 그런 분이셔. 널 맡기고 정말 안심하고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우리○○이가 35개월이 넘어 이제 곧 어린이집도 가야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너를 시간제로 계속 돌봐주시겠다고 선뜻 말씀해주셔서 엄마는 또 한번 든든 하단다.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아이돌봄 선생님을 100일 만에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애기 때 우리집에 실습오셨던 선생님이랑 또 인연이 났단다. 인연은 참신기하지?! ○○이 덕분에 선생님들을 알게되고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도 아이를 각각 한명 씩 일대일로 보육해주시니 난 참 행운이야! 엄마 친구들은 아이돌봄이란걸 몰라서 고생했다고 하고 아직도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서 엄마만 열심히 전파 중이란다.

사랑하는 ○○야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 ○○를 잘 키우기 위해서란다.

엄마가 하루종일 같이 놀아주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니 잠시 떨어져 있는 낮 시간에 선생님들과 지금처럼 많은 추억 쌓으렴. 참 좋은 분들이셔~ 곧 있으면 어린이집에 갈 만큼 우리○○이가 커서 엄마는 또 한번 변화에 걱정이 앞서지만... 선생님들과 함께라 든든하단다. 그리고 세상에게 가장 사랑하는 ○○에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크자! 이 혼한말이 가장 어렵단다. 감사해하면 행복하단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매일 보이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살면 감사할거야. 어렵지?! 엄만 너희들이 감사해서 행복하단다!!~

사랑해!!!





## 서○연 이용자

우리 동이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세 아이를 독박육아하는 저에겐 아이돌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베프, 껌딱지^-^

2015년 2살.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걷던 우리집 동이들이 2020년 훌쩍 자라 7살이 되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의젓한 모습이 되었네요. 그 중 제일 감사드리는데 돌봄 선생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수 돌봄 선생님과 만남은 제게 최고의 만남, 축복의 시간이 되었지요. 선생님이시기 전에 외할머니처럼 내 손주 같이 돌봐주시고 깊이 사랑해주시고 늘 아이들의 입장에서 눈높이 친구가 되어 주시며 지금까지도 동이들 곁에서 매일같이 함께해주시는 선생님. 세 아이의 철없는 엄마인 저에게도 좋은 선생님이요, 때론 벗이 되어 주셔서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 동이들이 7살이 된 것처럼 선생님의 나이도 60대 중반이 되어버리셨다는 선생님. 건강관리 더욱 잘하셔서 앞으로도 주욱 현역에서 활동하시길 응원 할게요! 선생님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으며 그 사랑 저도 함께 나눌게요. 늘 고맙고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아이돌봄은 내게 최고 절친 베프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수 선생님~~

## 장○나 이용자

항상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최○자 선생님~

애들을 잠시 재우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벌써 두 해가 지나 ○○이가 어린이집도 가게 되었어요^^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는거 아시죠~? 주위의 식구들보다도 선생님께 더 의지가 되고 기대게 됩니다. 선생님 힘드시게 하는 것은 아닌가..걱정이 되기도 해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눈물이 그렇그렇 해져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꼭~ 도와주세요~ 히히..

염치도 없이 이런 말을 하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이○윤 이용자

2013년 1월 첫 아이를 낳고 100일 후 바로 일을 나가야 했었다. 무서움 반 기쁨 반의 마음으로 첫 아기돌봄 염○혜 선생님을 만났다. 첫날 인사만 드리고 나는 바로 출근을 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했지만 벌써 4년을 함께하고 있다.

친정엄마보다 나를 옆에서 4년동안 육아일 봐주신 염○혜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일도 마음대로 못 했을 것이고, 아이 걱정에도 지금의 우리 가족 둘째 ○○도 없었을 것이다.

첫 아이가 입을 열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같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나보다 선생님을 더 찾았고 어떤 때는 선생님 안 온다고 울고불고 엄마인 나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해서 한편으로는 질투도 낫지만, 안심이 갔다.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을 아시고, 아기와 관련된 일만 보시면 될 텐데 아기방 청소까지 해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서 많은 책들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며, 무겁게 책도 얻어다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모이자 친정엄마이자 엄마처럼 우리 첫째 아이를 살뜰히 보살펴주신 염○혜 선생님.. 일도 힘드실텐데 아이를 진심으로 예뻐해주셨습니다.

함께 활동하신지 4년째 되는 해, 선생님의 어머니가 병석 약화로 같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우시면서 우리 첫째 아이 얼굴을 반히 쳐다보신 모습을 회상하면 한없이 감사 할 따름입니다.

그 후로 선생님 추천으로 전○녀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을 첫째 아이 얼굴보러 간간히 오셨는데, 그 어느 친척보다도 진심으로 우리아기 대해주신 선생님이 없었다면 정말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는 데 힘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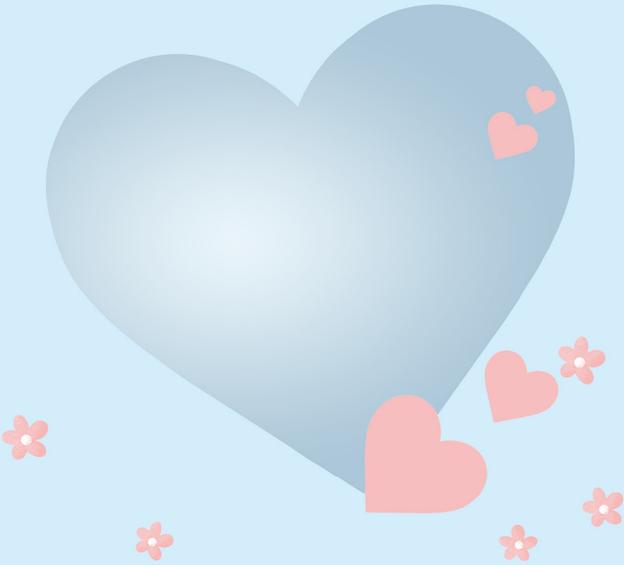
같습니다.

오랜시간 첫 선생님과 함께해서인지 두 번째 선생님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조심스러웠으나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졌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만큼이나 두 번째 전○녀 선생님과도 4년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첫 번째 선생님만큼이나 너무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주말이면 둘째는 선생님 안와요? 하고 아쉬워합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보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살림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없던 테이프가 생겨 물어보니 선생님께서 아이들 필요한 테이프를 조용히 갖다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보다는 엄마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많이 주는 실수를 종종 할 때마다 우리 아기 생각하시며 “○○엄마,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지마~ 버거워 안쓰러워” 진심 어린 말로 아이들을 위해주셨습니다. 바쁜 엄마인 저는 아이들 이야기 들어줄 시간이 없어서 “엄마는 왜 내 말 안들어줘.. 선생님은 내말 들어주는데...” 아 이에게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친정엄마이자 아이들 할머니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기에 지난 8년을 무사히 일하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mdong.familynet.or.kr](http://namdong.familynet.or.kr)

04

남동구만의 특별한 사업  
"SAFE OF 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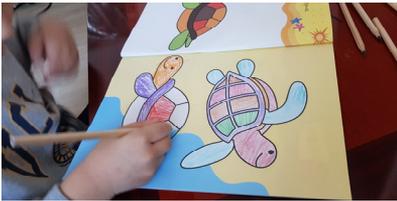


## 남동구만의 특별한 사업 "SAFE OF 남동구"

남동구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 놀아주며 돌보미 아이돌보미 “놀!재!놀!아!” 사업

다양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하여 활동시간 내 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20년 놀자놀아사업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클레이 만들기, 색칠공부, 글라스데코 지원

### ▶ 홈카메라 대여

가정용 홈 카메라 대여를 통해 돌봄활동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 센터 대여접수 후 이용가능,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 위기가정 발굴 “동행”

경제적 이유 및 조손, 한부모 등의 다양한 이유의 돌봄환경이 열악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여 돌봄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친절한 아이들”

신규 이용자 가정에 실무자가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들을 1:1 서비스를 통해 해소시켜드립니다.



▶ 활동수첩 “손편지는 사랑을 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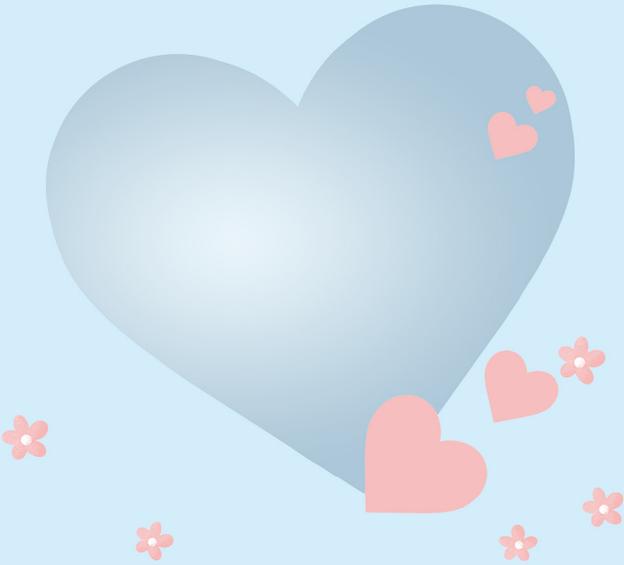
활동수첩에 아동활동상황을 전달하며, 이용자와 돌보미간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돌보미 사례집 제작

아이돌봄활동 중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2020년 사례집 200권 제작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mdong.familynet.or.kr](http://namdong.familynet.or.kr)

05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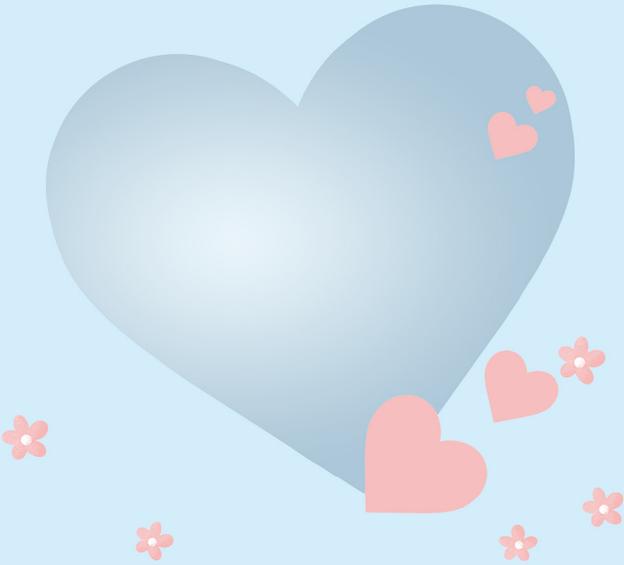


## 이용자

1.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 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 아이돌보미

1.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봅니다.
2. 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상시적으로 안전을 살피며,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습니다.
4. 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킵니다.
5.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namdong.familynet.or.kr](http://namdong.familynet.or.kr)



## 아이돌봄의 tip





## 올바른 텔레비전 시청 요령

### 1. 시간을 정한다.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시간을 합쳤을 때 두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2. 가정에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거실 가구를 텔레비전 중심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 3. 시청 계획을 미리 세운다.

텔레비전 편성표를 미리 파악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할 때만 텔레비전을 켜주세요.

### 4. 텔레비전 시청을 상이나 벌로 이용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했을 때 텔레비전을 보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아이는 텔레비전을 소중한 물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5. 대안을 마련해서 부모가 함께 한다.

운동, 독서 그림 그리기 등 텔레비전 시청 외에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합니다.

### 6.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아이도 텔레비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 성기로 장난칠 때 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

1. “더러운 거야”, “나쁜 행동이야” 하며 아이를 비난하는 일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2. “고추가 떨어 진다” 와 같은 거짓말로 아이를 위협하는 일 실제로 고추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3. 때리거나 야단치기 자신에 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 성기로 장난칠 때 해야 할 다섯 가지

1. 더러운 손으로 자꾸 만지면 고추가 아파 ”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해 ” 라는 식의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
2.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자주 안아 주고 사랑을 표현하기
3. 매일 아이와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주기
4.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흥미를 분산시키기
5. 성교육 내용의 동화책을 보여주며 올바른 성교육 하기.

## 예쁘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만드는 대화 십계명

1. “안 돼”와 같은 금지의 말보다는 “좋아”, “괜찮아” 등 허용의 말을 많이 해 주세요
2. 아이에게 뭔가를 시킬 때는 “해 줄래?” 하고 부탁하세요.
3. 아이가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막지 마세요.
4. 아이의 행동 동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맞장구 쳐 주세요.
5. 칭찬 받을 일과 야단칠 일을 구분하고 일관되게 지켜주세요.
6.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화를 재지 말고 낮고 단호한 어조로 타이르세요.
7. 아이가 부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해 주세요.
8.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논리적으로 말해주세요.
9. 아이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10. 아이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



##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는 이유

1. 신생아 때 거의 말을 걸어 주지 않은 경우.
2. 아이가 울어도 안아 주지 않은 경우.
3.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을 걸어 주지 않은 경우.
4. 아이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엄마가 알아서 먼저 해준 경우.
5.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준 경우.
6. 퍼즐이나 블록 등 혼자 하는 놀이만 시킨 경우
7.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자주 바꾼 경우.
8.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9. 아이에게 말을 따라 할 것을 강요하고 틀릴 때마다 지적한 경우.
10. 카드나 교재 등을 이용해 주입식 교육을 시킨 경우.



